

## 선한 양심에 의한 죄

### 정세 이야기

2023년 5월에 평안남도 순천시 외곽 통암 마을의 농가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5시에 5명이 농가에 모여 기도와 성경 공부를 했던 일가족 5명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오늘도 북한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북한은 1954-1972년 종교 말살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북한 주민을 성분에 따라 사회를 재구성하는 ‘토대사업’을 자행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성분 사회를 구성하면서, 기독교인은 유일사상의 체계에서는 씻어 버려야 할 불결한 대상으로 여겨졌고, 혁명의 과업을 이루는 북한에서는 ‘오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북한 정권은 기독교인을 정치범 수용소에 격리하고, 공개처형을 하고, 무더기로 매장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배교를 강요했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워버리기 위해 예배당을 파괴해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 생활하던 곳에서 다른 낯선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씻어 버려야 할 대상”인 “오염원”을 제거한 북한 땅에서는 ‘백두혈통’과 그 백두혈통을 옹위하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수령 중심으로 당의 영도를 따라 살아가는 유일사상체제가 되었습니다. 김정일은 70년대부터 80년대 들어와서 북한의 도시를 수령 중심의 주체사상으로 도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일성 동상과 또 김일성 혁명 사적관을 중심으로 도시가 다시 재구성했습니다. 북한주민은 그러한 공간에서 삽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이 그리스도인을 제거하는 박해 상황에서 북한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남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북한 정권은 그러한 행동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혁명 사업을 위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한 양심으로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중에 이렇게 증언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는 예전에 평양에 살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함경도로 이주하게 됐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땅에서 그루터기처럼 신앙을 지켜온 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박해를 받고 숨죽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서 죽어 순교한 북한 성도의 피 위에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

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지하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순교자의 자손과 그루터기 성도와 지하 성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성도들이 숨죽이며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남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남북한 성도가 기도 시간에 서로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성도를 체포하고 핍박하는 북한 정권이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이 사악한 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북한 동포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선한 것이라 여기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했던 죄를 들추어 보여주셔서 참회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양심이 주장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은혜를 주옵소서.

#### 통일선교기관의 특별기도 제목

#### 말씀 나눔

본문: 마태복음 26장 63절-65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위 본문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장차 심판자로 재림하실 것임을 증언합니다. 이 증언을 들은 대제사장이 예수가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까? 대제사장 자신이야말로 예수의 증언을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

나눔을 모독한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은 대제사장이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과 행동에 대한 죄 인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당당한 모습입니다. 그는 오랜 전통과 관심과 율법의 인식 안에서 스스로 신앙적 선한 양심에 의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북한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을 제거하고 있는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행합니다. 그들은 혁명 과업을 위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은 그리스도인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당을 파괴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년 동안 목사로서 소속 교회의 당회의 허락을 받고, 통일부 허락을 받고, 북한 초청을 받고 신의주에 3년을 드나들었습니다. 신의주에 있던 교회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당을 보는 순간, 이 건물은 비록 십자가는 없었지만, 과거에 교회당으로 사용했던 건물임을 인지하기에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건물 전체 모습이 과거 그 지역에 있었던 예배당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같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건물은 인민군 내무반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그들이 죄를 짓는다는 양심의 가책 없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에서 북한 성분 사회에서 만들어진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사회는 성분 사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기독교 탈북민 성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 탈북민 성도에게는 다양한 성분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형성된 인식이 노출할 때가 있습니다. 남한 땅에 온 탈북민들과 성경 공부를 수년 동안 했습니다. 평양에서 온 탈북민은 함경도에서 온 사람들 몇몇 사람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온 탈북민이 둘만 있는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북한 같았으면 저 사람들은 내 곁에도 못 왔습니다"라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분으로 구조화된 북한 사회에서 형성된 인식이 자유대한민국에 와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에서 나온 말로 다른 탈북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에게도 유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 남한 출신 성도가 교회에서 탈북민 성도들 만납니다. 어느 날 그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여 혼란스러울 때, 그가 남한 편을 들까, 아니면 북한 편을 들까,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탈북민 성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탈북민은 본인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난 사례가 있습니다. 남한 출신 성도는 탈북민에게 질문한 것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 탈북민이 교회를 떠나게 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죄로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 선한 양심으로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 선하다고 여기는 것과 그 양심에 의한 판단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도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체포해 갑니다. 그들은 이것이 죄

인줄 모르고 그것이 자신들의 체제를 지킨다는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가 있는 북한 땅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 갑시다.

## 신학적 관점

미로슬라브 볼프는 “**배제는 문명 안의 야만성이며, 선한 것들 사이의 악이고, 자아의 벽 안에 있는 타자에 대한 범죄다**”<sup>1)</sup>를 주장합니다. 그는 니체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적들이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와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태도”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악한 사람들의 짓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짓이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양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분이 선에 대한 자신들의 관념을 거부하는 것을 악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sup>2)</sup>

니체가 말하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이미 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덕목을 제안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악의 부재(the absence of evil)를 실현해야하기 때문에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독침을 가진 벌레처럼 “그들은 사람을 쏘되”, 완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제는 ‘악한 마음’에 의한 죄일 수도 있지만, 또한 ‘선한 양심’에 의한 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당들이 어떤 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선한 사람이 입히는 피해만큼 해롭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니체의 경고<sup>3)</sup>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이 벌인 ‘토대사업’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은유로 나타난 ‘배제’ 행위입니다.

남한 사회는 근대화, 산업화, 현대화를 거쳐 왔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정치적 의사 결정, 교육에 평준화, 직업에 대한 선택권 등에 평등한 권리를 지녔다는 인식합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진보하며 확장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와 반대로 북한 사회는 토대사업으로 가장 잔인한 형태의 배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을 성분으로 갈라놓고 그 경계를 화석화하는 사회입니다. 남북한의 두 사회의 간극은 남한 땅으로 이주하여 들어온 탈북민을 대하는 남한 사람들에게서 탈북민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갖게 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관계를 깨는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도덕적이고 문명화되었지만, 그들은 불편하고 이상하고 열등하고 촌스럽고 폭력적인 야만스럽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한에서 성장한 사람이 스스로

1) 미로슬라브 볼프,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91.

2) 위의 책, 91, 재인용.

3) 위의 책, 100, 재인용.

의 선한 양심으로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